

2006. 11. 1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



충청북도의회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임채정 국회의장님,
한명숙 국무총리님,
조일현 국회건설교통위원장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

21세기 장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국가의 선진 도약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면서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이 경의를 드립니다.

중부내륙철도사업은 중부내륙권 부존자원개발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천~충주~문경간 철도건설사업으로 국가기간교통망체계 구축은 여객·화물 등의 물류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국토균형발전과 산업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지역은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도계지역으로 수도권과 1시간대의 거리에 위치하면서 경기·충북·강원권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국도 감곡IC가 소재하고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역으로써 그동안 수도권으로부터 100여개 업체가 이전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극동대학교와 극동정보통신대학이 위치해 2007년 학생정원이 1만여명으로 늘어나고, 이중

약 90%이상이 수도권 통학이 예상됩니다.

또한, 감곡지방산업단지를 2009년까지 1백4만5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등 앞으로도 더욱 산업단지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요구되는 지역이지만, 화물수송은 국도와, 지방도로 등 도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감곡정거장 설치가 절대 필요한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감곡정거장 건립을 위해서 진입도로 및 중부내륙고속국도 감곡IC 연결 도로를 개설하도록 지원하면서 도로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곡지역의 정거장 건립은 참여정부의 국정 최대과제인 국도의 균형개발과 지방분권 정책의 합리적 수행으로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시킴은 물론,

산업 및 교육환경의 인프라 구축, 인근 자치단체 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감곡정거장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오니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안)대로 건립되도록 150만 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2006년 11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